

T V

TV 5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Table with 4 columns: KBS1, KBS2, MBC, KBC/SBS.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‘무도’ ‘나가수’ 음원차트 점령

‘무도’ 음원 모두 10위권 포진...신곡 낸 가수들 ‘울상’

MBC TV ‘무한도전’과 ‘서바이벌 나는 가수다’ 등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들이 제작한 음원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신보를 낸 가수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.

4일 멜론, 엠넷닷컴, 도시락 등 음악차트에는 지난 2일 ‘무한도전-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’에서 방송된 ‘GG(박명수, 지-드래곤)’의 ‘바람났어’가 1위, ‘처진 달팽이(유재석, 이적)’의 ‘압구정 날리리’가 2위, ‘바닷길(바다, 길)’의 ‘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’가 3위 등 7곡이 모두 10위권에 포진했다.

또 3일 MBC ‘우리의 열방’의 ‘나는 가수다’에서 방송된 박정현의 ‘겨울비’와 YB의 ‘빙글빙글’, 김범수의 ‘사랑하오’, 장혜진의 ‘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’ 등이 20위권으로 뒤를 이었다.

반면 신보를 낸 가수들의 순위는 동시에 하락했다. 투에니원의 ‘내가 제일 잘 나가’, 티아라의 ‘롤리-폴리(Roly-Poly)’, 2PM의 ‘핸즈 업(Hands Up)’, 현아의 ‘어 비터 데이(A Bitter Day)’ 등이 10위권 또는 20위권에 갇혀있어 아쉬운 표정을 지어냈다.

당초 이런 사태를 우려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주요 관계자들은 방송사들이 음원 장사에 나선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.

유일하게 KBS 2TV ‘불후의 명곡2: 전설을 노래하다’만이 음반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연 가수의 음원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.



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악대의 자분을 들인 창작 음반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”며 “방송사들은 ‘프로그램 다시 보기’ 등 각종 콘텐츠를 재활용해 수익을 거두면서 프로그램 시청률을 올리고자 손쉽게 만든 음원으로 장사까지 하는 셈”이라고 비난했다.

또 다른 기획사의 매니저는 “이제 ‘무한도전’과 ‘나는 가수다’ 등 각종 프로그램 음원 출시일을 피해 음반을 내는 가수도 생겨났다”며 “콘텐츠를 보유한 연예에 권력이 세졌지만 우리 여전히 방송사의 힘 앞에서는 약자이니 그러한 이유로 출연을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”이라고 토로했다.

애프터스쿨·천상지희 멤버 일부 유닛으로 울여름 공략

결그룹 애프터스쿨과 천상지희가 멤버 일부로 구성된 유닛을 잇따라 선보인다.

애프터스쿨은 이달 중 멤버를 두 팀으로 나눠 ‘애프터스쿨 레드’와 ‘애프터스쿨 블루’로 동시에 활동한다. 소속사인 플레디스는 4일 ‘멤버들이 섹

시하고 강렬한 이미지의 레드, 여름을 겨냥한 시원하고 상큼한 이미지의 블루 팀으로 나뉘어 같은 시기 따로 음반을 발표해 경쟁을 벌인다”고 말했다.

천상지희는 멤버 다나와 선데이가 유닛 ‘천상지

희-다나&선데이’를 결성하고 오는 11일 디지털 싱글 ‘나 좀 봐줘’(One More Chance)를 발표한다.

2007년 발표한 1집 이후 일본 활동 및 개별 활동에 집중하던 천상지희의 멤버들이 신곡을 선보이는 것은 약 4년 만이다.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“다나와 선데이는 그간 뮤지컬 무대에서 가창력을 닦았다며 두 멤버의 파워풀한 가창력이 어우러진 노래”라고 소개했다.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

7월 5일(음 6월 5일 辛酉)



36년생 옛 물건을 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다. 48년생 허점이 있음을 알아라. 60년생 상대의 인거나 권위를 대신 누릴 수 있다. 72년생 여우가 밤의 위엄을 빌어 위세를 부리는구나! 84년생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업무를 상상해 본다. 행운의 숫자 : 51, 07



37년생 사진 속에 추억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. 49년생 다수인의 화해거리가 될 수 있다. 61년생 맹목적인 것도 문제지만 의심이 많아도 문제다. 73년생 타향살이에 지쳐 향수에 젖었다. 85년생 유행을 따르자니 개성을 잃게 된다. 행운의 숫자 : 30, 63



38년생 바탕이 선한 사람은 악에 물들지 않는 법이다. 50년생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된다. 62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. 74년생 중립적으로 처신해야 무난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. 행운의 숫자 : 56, 36



39년생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 내 주관이 중요하다. 51년생 내부의 적을 잘 감시해야 한다. 63년생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. 지금 시작할 때이다. 75년생 토론으로 의견일치를 보라. 행운의 숫자 : 10, 78



40년생 살림에 보탬이 될 일거리가 생긴다. 52년생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다. 64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, 즐거운 노래가 절로 나온다. 76년생 여자는 남편의 사랑 먹고 사느니. 행운의 숫자 : 17, 81



41년생 조문갈 일이 생긴다. 53년생 과대 광고에 현혹될 수 있겠다. 65년생 열 남 주고 집 사고, 백 남 주고 이웃 사했다. 77년생 오래 살면 아랫목이 내 차지가 된다. 행운의 숫자 : 40, 27



42년생 술잔을 돌리지 말자. 54년생 부담스러운 것은 거절해야 한다. 66년생 오래 가는 거짓말은 없다. 78년생 목도 닦아야 제 빛을 낸다. 행운의 숫자 : 25, 44



43년생 영향력이 사회에 크게 미칠 수 있다. 55년생 급할수록 순리에 따라야 한다. 67년생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한다. 79년생 주위 환경에 적응 하자. 행운의 숫자 : 01, 85



44년생 물건을 마음에 드는데 비싸서 부담된다. 56년생 외상을 주변 사람 잃고 돈도 잃는다. 68년생 같은 계열사로 전근을 갈 수 있다. 80년생 용기가 부족하여 이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. 행운의 숫자 : 64, 74



45년생 용 꿈을 꾸었다면 반드시 황제하라. 57년생 수하의 미숙한 점은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. 69년생 자신의 업무가 짜임새 있게 잘 추진된다. 81년생 우물가 공론도 귀 담아 들으라. 행운의 숫자 : 28, 87



46년생 재물이 몸을 따르니 부유하기가 황금 골짜기와 같다. 58년생 회사의 지휘권을 갖게 된다. 70년생 타인의 재물이 우연히 집안으로 들어온다. 82년생 이상의 사랑 고백을 확인하고 싶어진다. 행운의 숫자 : 35, 26



47년생 원님 덕에 나날 분다. 59년생 침입에 대비해서 회사 경비를 철저히 해야겠다. 71년생 소망했던 뜻을 이루라. 83년생 평생애를 이직장에 품답을 수 있다면 좋겠다. 행운의 숫자 : 21, 46
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011-632-6121

EBS

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EBS플러스1 EBS플러스2

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우리말 나누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워 오하오우 니혼고

우리말 나누이 새우젓/새우젓. “새우젓으로 김치를 담가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.”

It may not be that simple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걸. A: There's too much traffic in GwangJu these days. I think cars should be banned!

两面派 liǎng miàn pài 박쥐같은 기회주의자. ‘두 면(兩面)으로 된 부류(派)’라는 의미로 ‘입은 그럽다고 하면서 마음은 아닌 경우(口是心非), 진실을 숨기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.

오래만이군 お久しぶりだね. 오렌만이군. A: おい、南ちゃん お久しぶり. B: いや、しばらくだね.